

# 양림동의 가을, 인문학으로 물들다

‘굿모닝 양림’ 18~26일 개최  
펄컨마을 공예거리 등 공간 활용  
전시·체험·인문 콘서트 등 다채  
양림골목 비엔날레 연계 행사도

100여 년 전 서구 근대문화가 유입됐던 광주 양림동은 지역 근대유산을 간직한 문화예술의 보고다. 우일선 선교사 사택, 이장우 가옥을 비롯해 오웬기념각, 조아라 기념관 등 공간에 역사와 예술 흔적이 깃들여 있다.

그런 연유에서 양림동에서 태어났거나 연을 맺고 예술활동을 펼친 이들도 많다. 화가 한희원, 시인 김현승, 소설가 문순태와 황석영 등은 대표적인 예다.

이름이 알려진 이들뿐 아니라 평범한 주민들과 예술가들이 작품을 모아 조성한 ‘펄컨마을’도 이목을 끈다. 근대와 현대의 매력이 공존하는 양림동은 지역민과 예술가에게 살아있는 문화유산과 같다.

광주남구문화원과 굿모닝양림행사추진위가 ‘제13회 굿모닝 양림’을 오는 18~26일 양림오거리, 펄컨마을공예거리, 양림오픈스튜디오 등에서 펼친다. 양림동의 문화유산과 공간을 활용한 공연, 축제, 전시는 물론 인문학 콘서트, 참여·체험 프로그램으로 채워지는 인문학 축제다.

본 행사에 앞서 17일부터 ‘최순정 작가전’, ‘광주 여류생활 도예전’, ‘버드나무역사 사진전’, 18일부터 ‘양림문화 인물전’을 진행한다. 각각 양림문화센터, 515갤러리, 버드나무 아래, 양림동 일원에서.

개막식은 18일 양림오거리 주무대에서 광주양림교회 하늘빛 중창단의 합창 공연으로 막을 올린다. 같은 날 MBC 공개방송 ‘정오의 희망곡’에는 서영은, 민서, 김동명, 이상한계절, 레디스, 미교 등 아티스트가 출연할 예정이다.

19일 오후 2시에는 펄컨마을공예거리 야외광장에서 ‘양림의 시’라는 주제로 시 낭독 공연을 볼 수 있다. 같은 날 오후 3시 ‘기억소환, 가을감성 연주’에서는 푸른길 앙상블, 김무빈, 김중식, 임현숙 등이 저마다 선율을 들려준다.

빅맨싱어즈와 남구합창단이 함께하는 ‘가을, 낭만콘서트’도 가을 밤하늘을 수놓는다. 이외 안병환, 문상호 등이 출연하는 ‘무형문화유산 공개 행사’는 20일, ‘양림 국악나들이’는 26일 진행한다. 가수, 소설가 등 여러 장르의 예술가들이 출연



광주남구문화원, 굿모닝양림행사추진위가 오는 18~26일 ‘제13회 굿모닝 양림’을 양림동 일원에서 펼친다. 지난 12회 성악 개막공연 모습. (굿모닝양림행사추진위 제공)



참여·체험 프로그램 ‘양림 예술마켓’에 참여한 시민들의 모습.

하는 ‘인문학 콘서트’도 볼거리다.

18일 화가·가수인 정미조 19일 전남도립미술관 장 이지호, 23일 소설가 정지아를 비롯해 26일 배우 박정자를 만날 수 있다. (양림동행정복지센터 지하공연장에서 오후 3시)

양림골목 비엔날레와 연계한 두 개 행사도 이목을 끈다. ‘양림 버스킹 로드’는 19, 20, 26일 10년 후그라운드와 슈퍼베이글마켓 옆 공터에서 만나는 길거리 버스킹이다. 전라·제주권 청년 예술가들이 노래하는 ‘청춘마이크 페스타’도 26일 펼쳐질 예정이다.

풍성한 참여·체험 프로그램도 지역민 발길을 사로잡는다. 19일 ‘내가 김현승 시인이 된다면’, 이튿날 ‘주민과 그려보는 양림 그림여행’은 각각 시

와 회화를 주제로 한 참여형 예술프로그램이다.

26일에는 수공예를 테마로 한 ‘Handmade의 양림’, ‘정크아트 펄컨’, 그림을 배우는 ‘캘리그래피 나노화가’, ‘캐리커처’ 행사가 마련된다.

한편 축제 기간 동안 광주비엔날레 본전시(양림문화센터), 파빌리온 전시(씨울 외), 양림골목비엔날레 연계 전시(차고 갤러리 외)도 볼 수 있다.

한희원 굿모닝양림 추진위원장은 “지역민과 관객들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을 뿐 아니라 인문학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며 “‘굿모닝 양림’이 광주를 대표하는 인문학 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힘쓰겠다”고 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홍보·놀보 형제에 숨겨진 비밀은?

거꾸로프로젝트 ‘홍보가 비하인드스토리’ 19일 북구문화센터



거꾸로프로젝트의 3색 소리극 ‘홍보가 비하인드 스토리’ 공연 장면. (북구문화센터 제공)

판소리, 전래동화 등에 색을 입히는 ‘각색’은 전통에 새로운 생명을 부여한다. 현대적 요소를 가미하거나 고루한 레퍼토리를 변용하는 등, 여러 작품에서 다채로운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거꾸로프로젝트(대표 채지혜)가 3색 소리극 ‘홍보가 비하인드스토리’를 오는 19일 오후 3시 북구문화센터 공연장에서 펼친다. 광주북구시설관리공단이 기획했으며 전래동화 ‘홍부전’에 감춰졌던 뒷이야기를 융복합 음악극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작품은 판소리 ‘홍보가’의 고전적 교훈을 살리고, 원형적 스토리를 비틀면서 대중이 공감할 수 있는 해학 요소를 추가했다. 주요 논대목 외에도 원작에 감춰진 숨은 장면을 선보인다.

판소리, 민요, 정가의 매력을 모두 살린 ‘3색 소리극’이라는 타이틀은 전통 시김새의 맛을 기대하게 한다. 주요 서사에 전통연희 요소가 더해져 볼거리를 더한다.

1막 ‘홍보와 놀보의 비밀’은 ‘인심이란’, ‘놀보 놀 거동봐라’, ‘신세타령’ 등 주요 대목들로 구성

됐다. 이어 ‘화초장타령’, ‘음식타령’, ‘회여지지 지지위지지’ 등으로 신명을 더하는 2막, ‘놀보 박타령’이 추가 되는 3막이 계속된다.

대미는 창자가 공연의 말미에 엮음소리장단에 맞춰 평조 기락으로 뒤풀이하는 ‘어질더질’이 장식한다.

2017년 결성한 거꾸로 프로젝트는 MBN 국악 오디션 ‘조선판스타’에서 TOP4에 오르며 주목받은 창작 국악그룹이다. 정규앨범 ‘GO BACK’, ‘월간 새음원 시리즈’ 등을 발매했으며 다양한 융복합 공연을 창제작하고 있다. 파리, 생황, 태평소에 김소연, 정가에 지민아, 판소리 서의철 등.

북구시설관리공단 나기백 이사장은 “전통 소리와 밴드의 사운드가 조화를 이룬 새로운 국악 뮤지컬로 온 가족이 즐기기에 좋은 내용이다”이라며 “다양한 장르의 예술 공연들을 꾸준히 선보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석 1만원, 티켓링크 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광양 출신 박혜강 전 광주전남작가회장 별세

광양 출신으로 광주전남작가회장을 역임했던 박혜강 소설가가 지병으로 조선대 병원에서 지난 14일 낮 12시께 별세했다. 향년 69세.

고인은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모티브로 한 장편 ‘꽃잎처럼’(전 5권), ‘운주’(전 5권), ‘도선비기’(2권), ‘조선의 선비들’(2권), ‘매천 황현’(2권) 등 굵직하면서도 묵직한 소설을 발표했다.

조선대 졸업 후 대한석탄공사에 입사한 박 작가는 재직 중 창작에 전념하기 위해 퇴사했다. 이후 1989년 무크지 ‘문학예술운동’ 제2집에 증편소설 ‘검은 화산’을 발표하며 문단에 나섰다.

지난 1991년 ‘제1회 실천문학상’을 수상한 ‘검은 노을’은 사회 변혁의 관점에서 제 모순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투영한 작품이라는 평을 받았다. 국내 최초 핵 문제를 서사화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난 2020년 소설집 ‘바깥은 우중’을 펴낸 당시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그는 “나는 아바타들을 통해서 개인적 체험이나 심정을 한탄조로 늘어놓

나 불만을 터뜨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며 “격동의 시대를 헤쳐 왔던 나의 아바타들은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행동하고 사색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고인은 소설 외에도 동화도 발표했다. 제1회 대산창작기금을 받은 환경장편동

화 ‘자전거 여행’을 비롯해 창작 동화 ‘나도 고고학자’가 대표적이다. 생전 박 작가는 광주전남소설가협회 회장과 광주전남작가회의 회장을 역임했다.

유족으로 배우자 임혜숙씨와 자녀 중현(신안·도초교 교사)·다운(경기 포천교 교사)·고운(대학원 박사과정 재학)씨가 있다. 빈소는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제3분향소에 마련돼 있으며 발인은 17일 오전 8시30분. 장지는 전남 광양시 진상면 선영.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서울서 수목 체험

오늘까지 서울시청 광장...머그컵 만들기·캐리커처 그리기 등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사무국이 16일까지 서울 시청 광장에서 2025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수목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사무국은 2025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본 행사에 앞서 수목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수목 장르

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4 전라남도 직거래장터 큰잔치와 연계해 운영한다. 이번 체험 행사는 수목 재료를 이용한 머그컵 만들기 수목 캐리커처 체험 이벤트로 구성돼 있다. 300여 명이 참여할 수 있어 누구나 무료

체험이 가능하다.

김형수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사무국장은 “이번 체험 행사를 통해 대중이 수목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다채로운 체험 행사를 마련했다”며 “2025년에 개최되는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가 새로운 K-콘텐츠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5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는 4회째로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 간 목포와 진도 등 전남 일원에서 열린다. /박성천 기자 skypark@

**wilo**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